

ASAN POL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 빈부·이념·세대·지역갈등 비교 평가/미중 정치-경제 영향력 평가 |

2013년 7월 16일(화) ~ 7월 31일(수)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 이의철 연구원 (02) 3701-7337, eclee@asaninst.org

▶ 사회갈등요인 평가

- 빈부갈등: 크다 77.1%, 보통이다 15.1%, 적다 3.6%
- 여야 갈등: 크다 72.2%, 보통이다 16.4%, 적다 4.7%
- 이념갈등: 크다 62.7%, 보통이다 20.1%, 적다 5.7%
- 세대갈등: 크다 60.8%, 보통이다 28.5%, 적다 7.1%
- 영호남 갈등: 크다 41.4%, 보통이다 27.4%, 적다 17.2%
- 수도권/지방 갈등: 크다 40.5%, 보통이다 31.1%, 적다 18.2%

▶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현재 미국 76.9%, 중국 7.4%

미래 미국 47.8%, 중국 35.1%

▶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현재 미국 61.4%, 중국 25.4%

미래 미국 23.9%, 중국 60.4%

▶ 직업별 사회기여도 평가

농/임/어업 종사자 80.6%, 군인 75.5%, 가정주부 74.6%, 교사 63.1%, 공무원 51.0%, 언론인 45.9%,
법조인 41.4%, 종교인 32.3%, 정치인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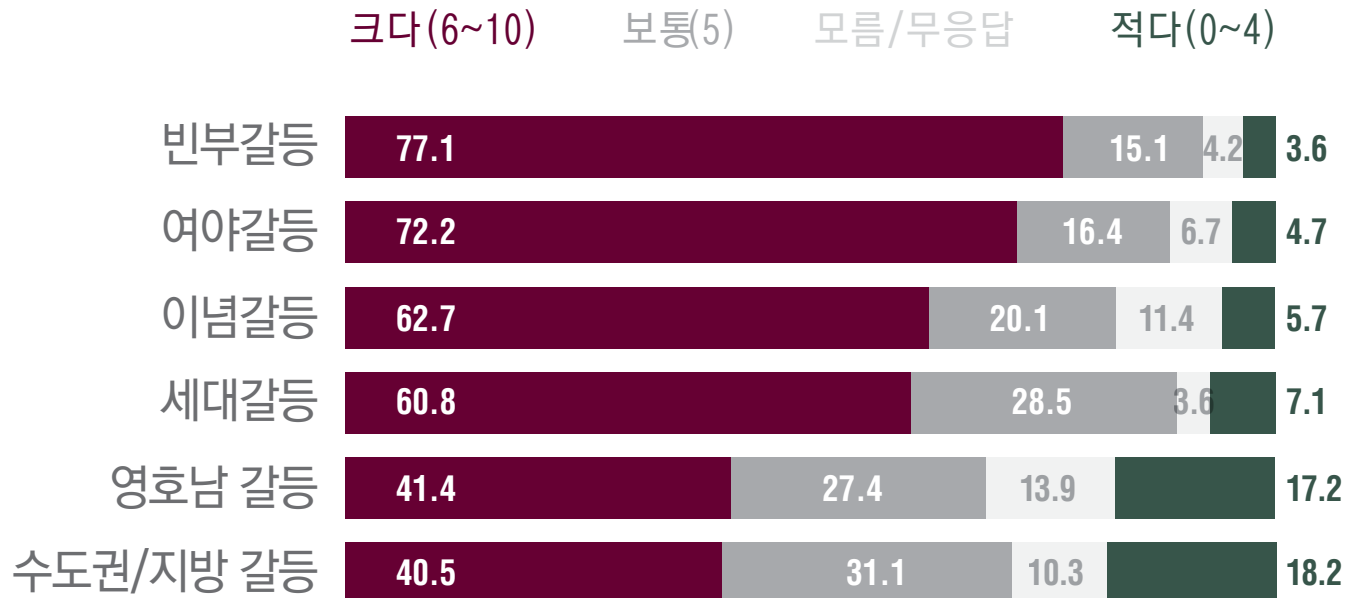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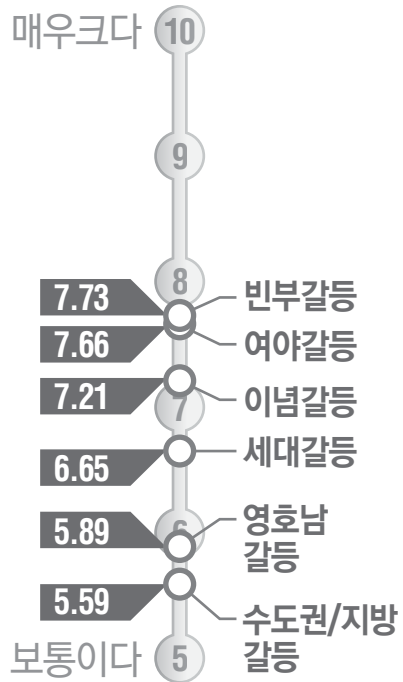
- 7월 16일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위한 재산 압류 및 압수수색
- 7월 17일 정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 7월 18일 유엔, 6백만 달러 대북 긴급구호 지원 결정
- 7월 19일 CJ 이재현 회장 2천억 탈세,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공명 연립 여당 과반 의석 확보
- 7월 22일 5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여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없는 것으로 결론
- 7월 24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SMA) 분담 2차 협상 시작
유엔, 북한에 긴급 수해 복구 지원 위한 실사단 파견
- 7월 25일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문 없이 종료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 정점현정 체결 기념행사 참가 위해 방북
- 7월 26일 여야, NLL 관련 일체의 정쟁 중단 선언
-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정부, 정전 60주년 기념식, 유엔군 참전 기념식 개최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 정전 60주년 대규모 열병식 거행
- 7월 29일 정부,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마지막 회담 제안
- 7월 30일 한미,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조사기간 7월 16~18일

‘매우 적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크다’를 10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

사회갈등요인
평가 평균 비교
(단위: 11점 척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빈부갈등, 여야·이념갈등, 세대갈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거리감을 11점 척도(갈등이 매우 적다 0점, 보통 5점, 갈등이 매우 크다 10점)로 조사했다. 빈부갈등과 여야 갈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갈등요인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빈부갈등(7.73점), 여야갈등(7.66점), 이념갈등(7.21점), 세대갈등(6.65점) 순으로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 갈등(5.89점)과 수도권/지방 갈등(5.59점)은 상대적으로 보통이란 의견쪽에 가까웠다. 이는 다른 갈등요인에 비해 지역갈등에 대해 6점에서 10점으로 갈등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영호남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이 크다고 본 비율은 각각 41.4%, 40.5%로 40%대 였으나, 빈부갈등(77.1%), 여야갈등(72.2%), 이념갈등(62.7%), 세대갈등(60.8%)에 대해 크다고 답한 응답자는 60%를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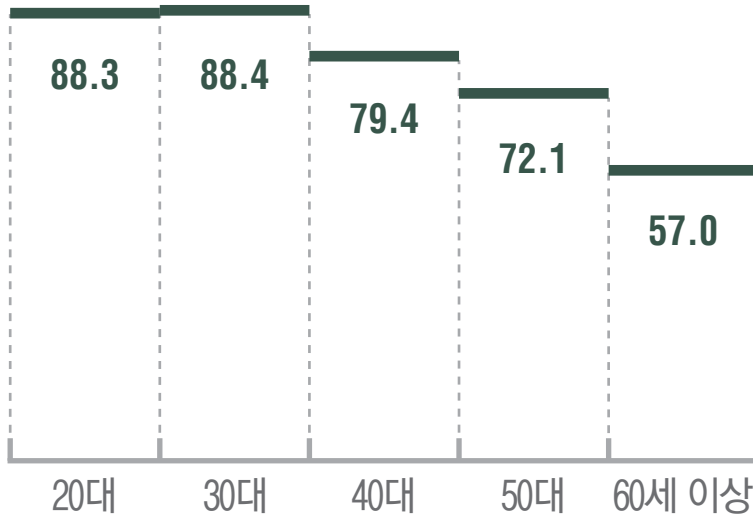


조사기간 7월 16~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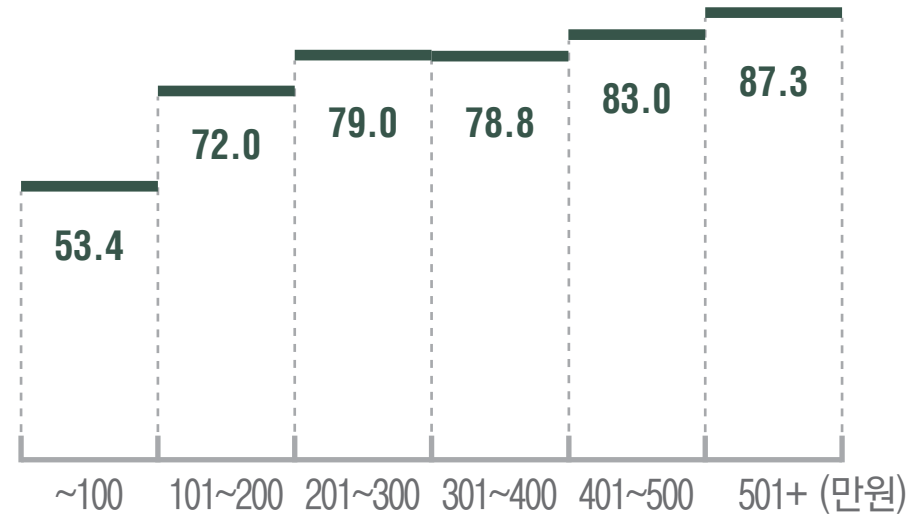
‘매우 적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크다’를 10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

| 빈부갈등이 크다(6~10)고 평가한 비율, % |

연령대별 빈부갈등 평가



월평균가계소득별 빈부갈등 평가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에서 빈부갈등이 더 크다고 봤다. 20대의 88.3%, 30대의 88.4%가 빈부갈등이 크다고 한 반면, 60세 이상의 57.0%만이 빈부갈등이 큰 것으로 봤다.

월평균가계소득별 빈부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흥미롭게도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빈부갈등이 크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 501만원 이상 그룹의 87.3%, 401~500만원 그룹의 83.0%가 빈부갈등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가구소득 101~200만원, 100만원 이하 그룹은 각각 72.0%, 53.4%만이 빈부갈등이 크다고 봤다.

빈곤을 피부로 느끼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빈부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빈부갈등에 대한 인식은 교육 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빈부갈등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록 빈부갈등이 더 큰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 수록 학력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졌다(소득구간별 대졸자 비율: 100만원 이하: 8.1%, 100만원 대: 31.9%, 200만원 대: 53.9%, 300만원 대: 61.4%, 400만원 대: 66.4%, 500만원 이상: 80.8%). 고연령, 저학력층으로 이뤄진 저소득층에서 빈부갈등에 대해 평가 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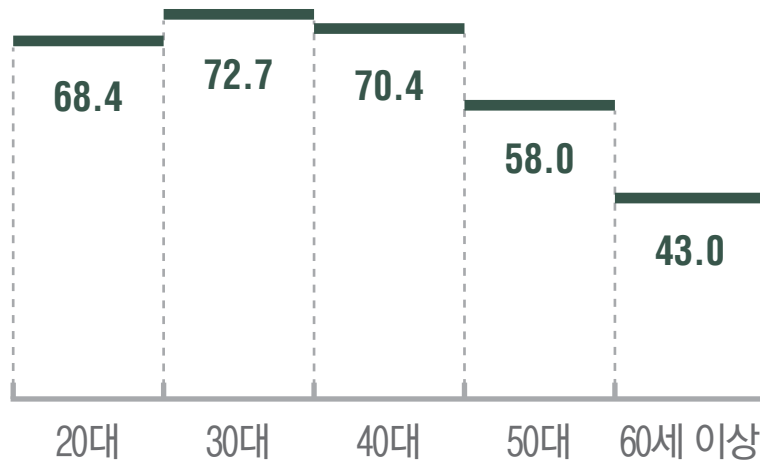


조사기간 7월 16~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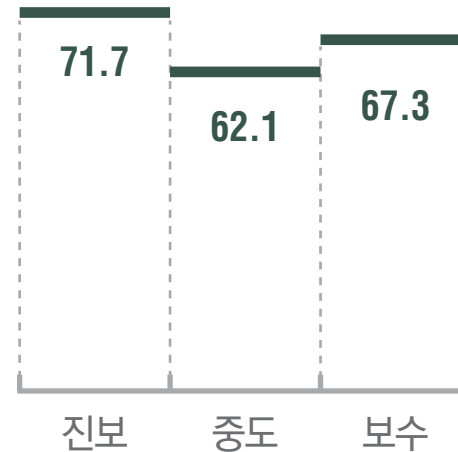
‘매우 적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크다’를 10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

| 이념갈등이 크다(6-10)고 평가한 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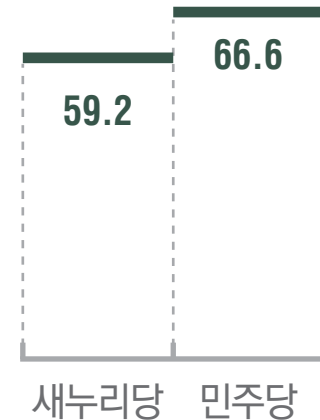
연령대별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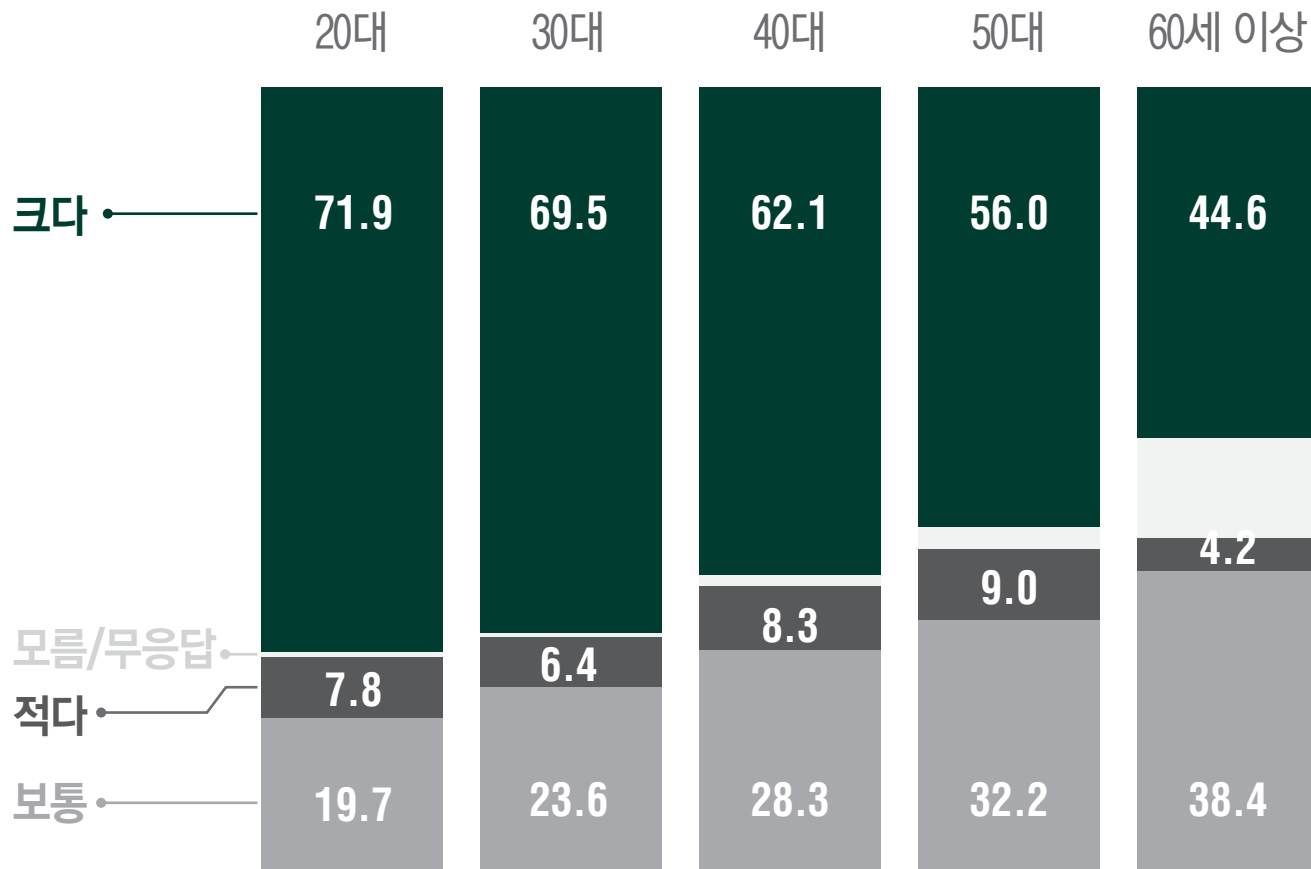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는 연령,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빈부갈등과 마찬가지로 이념갈등에서도 여전히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이 갈등이 더 크다고 봤다. 다만, 빈부갈등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크다고 답한 것과 달라 이념갈등은 20대 보다 30대와 40대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차는 계급 보다 연령층에 따른 이념갈등(30-40대와 50대-60대)이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에서는 이념갈등이 크다는 비율이 43.0%로 타 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를 유보(잘 모름/무응답)한 비율이 30.4%로 높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그룹에서는 빈부갈등과 마찬가지로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진보와 보수성향 응답자 사이에서의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의 71.7%, 보수의 67.3%가 이념갈등이 크다고 봤다. 중도 응답자는 62.1%가 이념갈등이 크다고 답해, 진보나 보수성향 응답자에 비해 이념갈등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중도성향 응답자 보다 보수나 진보성향 응답자가 이념진영간 갈등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59.2%가, 민주당 지지층의 66.6%가 이념갈등이 크다고 답해 새누리당 지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이 더 큰 것으로 봤다.



조사기간 7월 16~18일

‘매우 적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크다’를 10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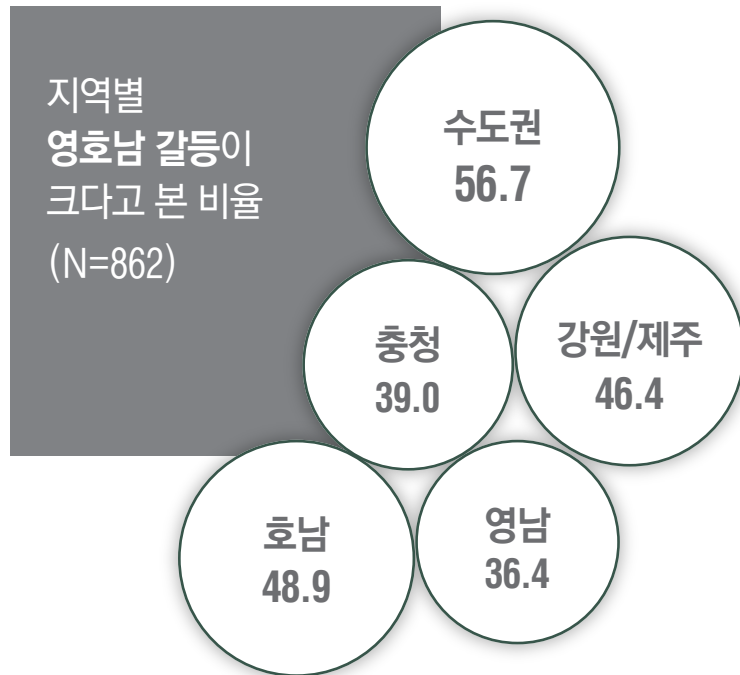


세대갈등에 대하여도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에서 갈등이 크다고 봤다. 세대갈등이 크다고 본 비율은 20대에서 71.9%로 가장 높았고, 30대 69.5%, 40대 62.1%, 50대 50.6%였다. 60세 이상은 44.6%만이 세대갈등이 크다고 답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세대갈등이 크다고 본 비율이 감소한 것은 노년층 응답자가 세대갈등 수준을 보통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조사기간 7월 1~3일, 단위 (%)

‘매우 적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크다’를 10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영남사람과 호남사람/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



지역별
수도권/지방 갈등이
크다고 본 비율
(N=898)



우리 국민은 영호남 또는 수도권/지방간의 지역갈등 양상이 다른 갈등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지역갈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다를까?

영호남 갈등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과 영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영호남 갈등이 크다고 보는 비율은 56.7%로 영남 거주자(36.4%)에 비해 20%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호남(48.9%), 강원제주(46.4%), 충청(39.0%) 순이었다. 평균값 비교 결과에서도 수도권 응답자(7.36점)와 영남 응답자(6.11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 응답자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도권 거주자가 영남과 호남 거주자에 비해 영호남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이유는 각 지역에서 같은 지역 주민에만 노출된 영호남 거주자에 비해, 영호남 출신을 동시에 접한 수도권 거주자가 영호남 갈등을 더 피부로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갈등의 다른 한 축이 된 수도권 대(對) 지방의 갈등은 수도권의 43.1%, 지방 응답자의 47.0%가 큰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기간 7월 22~24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응답자는 질문에 대해 선택지 없이 자유롭게 답하였다.

한국인의 76.9%는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고, 중국을 선택한 비율은 7.4%에 불과했다. 기타 국가로는 한국 0.8%, 유럽연합 0.7%, 일본 0.6%, 북한 0.4%, 그 외 1.0% 순이었다.

그러나 향후 국제정세에 대해 우리 국민은 미국에 뒤를 이어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47.8%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미래에 중국이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35.1%로 급증했다. 이 결과는 현재 미국이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35.4%가 미래에는 중국이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평가를 바꿨기 때문에 나타났다.



조사기간 7월 22~24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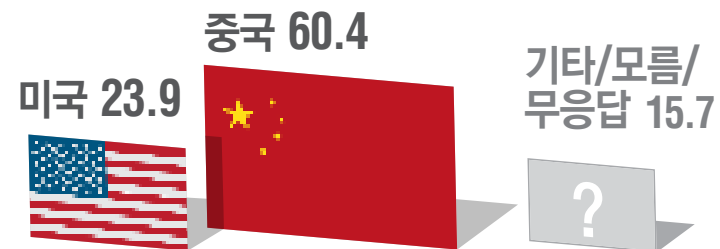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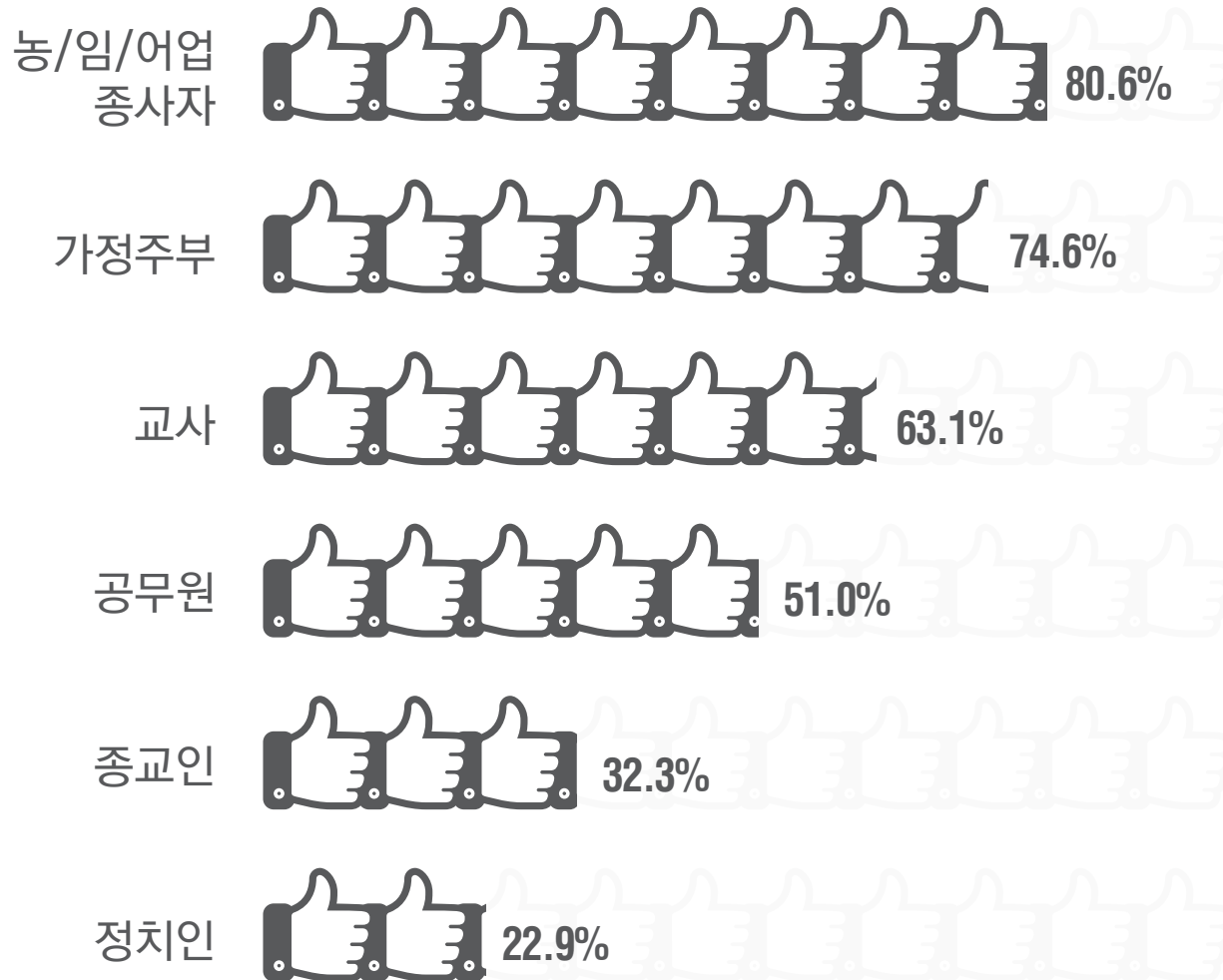
🕒 한국인은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지만, 미래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여겼다. 우리 국민의 61.4%가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봤다.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25.4%에 불과했다. 하지만 향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일 국가에 대한 전망에서는 압도적인 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신의 평가를 바꿨다. 한국인의 60.4%가 향후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국가로 중국을 꼽았고,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23.9%로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변화는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력 평가와 전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6.2%가 미래에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인의 의견을 바꿨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의 90.9%는 미래에도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답했다.



조사기간 7월 19~21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직업]이(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은 사회기여도가 높은 직업으로 농/임어업 종사자, 군인, 가정주부, 블루칼라 노동자 등을 꼽았고, 사회기여도가 낮은 직업으로는 종교인, 정치인을 꼽았다.

총 15개 직업에 대해 각각 그 직업 종사자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80.6%의 응답자가 농/임/어업 종사자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군인(75.5%), 가정주부(74.6%), 블루칼라 노동자(74.5%), 과학자(71.8%)가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사회기여도가 낮게 나온 직업으로는 정치인(22.9%), 종교인(32.3%), 법조인(41.4%), 언론인(45.9%)이 있었다. 정치인, 법조인 등이 사회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사회기여도 평가가 신뢰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아산 데일리 폴 '제도신뢰' 조사에서도 국회, 사법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의사(64.2%), 기업가(63.6%), 교사(63.1%), 화이트칼라 노동자(59.6%), 공무원(51.0%), 예술가(50.6%)에 대한 사회기여도 평가는 조사대상 중 중간 수준을 보였다.

